



분단*국가 : 둘로 나뉜 우리나라



1948년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결과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다. 3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는 등 양국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남한과 북한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깊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면서 생긴 손해나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제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 문화 생활 경제

김구 선생님은 남과 북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 분단의 위기에 놓인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김구 선생님은 통일을 위한 노력의 한 가지 방법으로 1948년 4월 19일 남북협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북행길에 올랐다.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 경교장에서 연설하는 김구 선생님 (1948.4.19)

“누가 뭐래도 좋다. 나는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이북의 동포들을 뜨겁게 만나보아야겠다.”



남북협상에서 축하하시는 백범 선생 (1948. 4. 22)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의 해야할 일은 통일독립인 것입니다.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는 통일독립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1948년 4월 19일 38도선을 넘는 김구 선생님은 5월 5일에 돌아왔다. 단독선거를 닷새 앞둔 날이었다. 김구 선생님은 단독 정부 수립이 우리 민족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면서 선거에 불참하였다.



38도선 위의 김구 선생님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 자신을 위한 구차한 편안함을 얻기 위해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남북협상의 의의

1948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남북요인회담에서는 외국군대의 동시 철수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등을 결의 및 공동발표 하였으며, 이 공동성명서는 이후 통일의 지표가 되었다.

분단 分斷 분 나눌(분) 끊 끊을(단) 적대 敵對 敵 대적할(적) 對 대할(대)
동강이나게 끊어기름 마주 대(對)하여버팀, 적으로 여김

